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성 명	유○○	학 과	○○전공
현장실습보고서 제목	현장실습을 통해서 배양된 꼼꼼함과 주인의식, 배려가 앞으로 취업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현장실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 및 계획	<p><낮가림이 심한 나,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 나를 던지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낮가림이 심했다. 이러한 낮가림은 대학교 생활과 군 복무에까지 이르렀다. 대학교에서는 교수님이 협동과제를 내주었을 때, 누군가가 항상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협동과제를 하자고 제안했다. 군 복무에서는 동기들이 TV를 보며 웃고 얘기하는 동안, 나는 홀로 책을 읽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낮가림으로 인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었다. 협동과제를 할 때, 협동하지 않고 “나 혼자서 다 해버려야지”라고 생각하며 협동과제를 마쳤다. 새로운 환경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낮가림으로 인한 나의 낮은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자 현장실습에 지원했다. <과제를 꼼꼼히 하기 위해서 매일 지새운 밤.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피곤함을 덜고 싶다.> 나는 성격이 꼼꼼하다. 대학교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면, 과제제출 전까지 밤을 새면서 계속 검토하여 과제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로 3번의 수석 장학금과 1번의 성적우수(A) 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몸은 항상 피곤했고, 아침 수업 때는 종종 졸았다. 그래서 과제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는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한다. 중요한 업무를 가장 먼저 끝내야 한다.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받는다면, 우선시 되는 업무부터 끝내는 습관을 기르고 싶어 현장실습에 지원했다.</p>		
기업에서의 업무 내용 및 현장 적응 노력	<p><유물이 현장 실습 기관의 것이 아닌 나의 것, 주인의식을 갖고 유물을 대하다.> 기념문화재연구원이라는 현장실습 기관에서 내가 다루는 유물들은 일반적으로 토기들이다. 토기들은 흙으로 만든 유물이기에 조금만 힘을 가하더라도 손상된다. 그래서 유물을 다룰 때는 이 유물이 나의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유물이 담긴 핸드카를 운반하면서, 주변 사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을 둘러보았다. 운반된 유물을 책상에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 두었다. 토기편들을 복원할 때에도 최소한의 본드와 CDK를 사용했다. 그 결과 8주간의 현장실습 기간 동안 유물에 물리적인 손상을 끼치지 않았다. 그 결과 유물 본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다. <꼼꼼한 눈썰미로 서류상에 서로 뒤바뀐 유물번호를 발견해, 잘못된 유물이 공주박물관으로 보내지는 것을 막다.> 박물관으로 보내지는 유물에 대한 라벨링 작업을 했다. 라벨링 작업이란 유물에 유물번호가 적인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다. 문제는 유물에 라벨링 작업을 하면서 발생했다. 국가 귀속 문화재 임시보관증과 국가 귀속 문화재 대장 그리고 안성 도기동 산성 유적 발굴보고서에 적혀있는 유물의 번호가 서로 뒤바뀌어있었다. 유물번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진과 유물의 명칭과 시대 및 발굴현장 등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알았다. 예컨대 유물명칭이 토기편인데 상평통보라고 적혀있는 것 등이다. 이를 같이 실습 중인 친구에게 알려 서류를 함께 다시 검토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알렸다. 그래서 라벨링 작업을 다시 해서 번호가 뒤바뀐 유물이 공주박물관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 나는 유물번호가 서로 뒤바뀐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라벨링 작업의 담당자가 휴가를 가게 되면서 다른 분에게 자신의 업무를 인수인계했다. 인수인계가 면대면으로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메모와 전화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업무를 대신하게 된 분이 국가 귀속 문화재 임시보관증과 국가 귀속 문화재 대장 그리고 안성 도기동 산성 유적 발굴보고서에 적혀있는 유물의 번호가 서로 뒤바뀌어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결핍으로 일어난 결과였다. 내가 이 업무의 담당자였더라면 면대면으로 인수인계를 해서 라벨링 작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p>		

	전에 예방했을 것이다.
현장실습을 통해 배운점 및 보람	<p><사무실 책장 속에 꽂힌 수많은 고고학 서적들,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다.> 나는 과제와 시험 준비를 성실히 해서, 수석 장학금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하지만 나는 고고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에게 고고학은 그냥 학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었다. 기남문화재연구원 사무실의 책장에는 수많은 고고학 서적들이 꽂혀 있다. 책장에 꽂힌 고고학 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고. <가장 기본이 되는 수장고 정리, 이를 통해서 배려를 체화하다.> 기남문화재연구원에는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존재한다. 이 수장고는 유물을 보관하기에 온·습도가 적절하며 안전하다. 수장고라는 한정적인 공간에 유물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앵글이라는 수납장이 있다. 앵글은 5층으로 된 수납장이다. 나는 유물을 수납장에 보관할 때, 다른 사람이 유물을 다음에 유물을 꺼내는 것을 고려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은 아래에 두고 가벼운 물건은 위에 두었다. 또한, 유물을 찾기 편하도록 위에서부터 아래로 유물번호대로 보관했다. 유물을 보관하는 방법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체화했다.</p>
진로탐색/취업과의 연계 경험담 및 취업 성공을 위한 각오	<p><이번 현장실습을 통해서 배양된 꼼꼼함과 주인의식, 배려를 취업에 활용할 것이다.> 나는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서 크게 3가지를 능력을 배양했다. 꼼꼼함과 주인의식, 배려이다. 첫 번째는 꼼꼼함이다. 꼼꼼함으로 잘못된 유물이 공주박물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았다. 나는 지원하는 회사의 사보, 인재상, 신 사업부 등을 꼼꼼하게 찾아볼 것이다. 찾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회사를 공략할 전략을 세울 것이다. 두 번째는 주인의식이다. 8주간의 현장실습 기간 동안 나는 유물을 다룰 때 조심스러웠다, 유물을 운반할 때도 항상 두 손으로 운반했다. 유물이 기관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및 인턴과 같은 많은 대외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다. 현장실습을 통해서 배양한 주인의식은 이러한 대외활동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한 대외활동 경력이 지원하는 회사의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 번째는 배려이다. 나는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할 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유물을 꺼낼 때를 고려했다. 다른 사람이 유물을 찾기 편하도록 앵글에 유물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배려를 취업에 활용할 것이다. 회사에 면접을 볼 때, 임원 면접·토론 면접·인성 면접 등 다양한 면접이 있다. 이중 토론 면접에 배려를 활용할 것이다. 토론 면접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 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토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견을 피력할 때 경청하는 배려이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때, 나의 의견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토론 면접에서 나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배려를 발휘할 것이다. 이는 곧 지원하는 회사의 합격률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p>